

광주FC, 제주에 발목... '파이널A' 탈락

K리그1 31라운드 0-2 패...김윤호, 17세 4개월 17일 최연소 출전 기록

광주FC의 '파이널A' 목표가 무산됐다. 광주FC는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1라운드 홈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초반 시작과 함께 7위 광주와 8위 제주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전반 3분 제주 한종무의 슈팅으로 시작한 경기, 28분에는 카이나의 왼발 슈팅을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저지했다.

이정호 감독이 1분 뒤 바로 교체 카드를 사용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예' 정지훈과 프로 데뷔전에 나서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운 김윤호를 불러들이고 가브리엘과 베가를 투입했다.

가브리엘은 거침없는 질주로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39분 가브리엘이 중원에서 공을 잡은 뒤 문전에 있던 베가에게 공을 연결했다. 하지만 골키퍼를 마주하고 베가가 날린 슈팅이 골키퍼 맞으면서 광주의 선제골 사냥이 실패로 끝났다.

전반 막판 두 팀의 신경전도 펼쳐지면서 전반전은 팽팽한 승부 끝에 0-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희균을 넣어 스피드를 높인

이정호 감독은 후반 9분에는 앞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엘리트 요코하마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장식한 아사니를 투입했다.

하지만 후반 21분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광주 진영 오른쪽에서 제대로 공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제주에게 기회를 허용했다. 문전에서 공을 잡은 유리가 뒤로 공을 흘려줬고 카이나가 왼발로 광주 골대를 뚫었다.

후반 28분에는 가브리엘의 오른발 터닝 슈팅이 상대 맞고 흘렀다.

후반 31분 제주 서진수가 올린 공을 받은 유리의 헤더가 바운드 된 뒤 골대 밖으로 흐르면서 광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후 제주의 거센 공격이 이뤄졌다.

후반 34분 골키퍼 김경민이 상대 역습 상황에서 김주공의 슈팅을 막아냈고, 코너킥 상황도 저지했다.

이어 광주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 프리킥 상황에서 아사니가 왼발로 그린 포물선이 골대 앞으로 향했지만 광주의 헤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광주의 파이널A 탈락을 확정하는 제주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이번에는 광주 박스 지역에서 공을 처리하던 정

호연의 실수가 나오면서 서진수에게 공이 연결됐다. 서진수는 오른발 슈팅으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고, 경기는 제주의 2-0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파이널B에서 '생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패장이 된 이정호 감독은 "감독인 나부터 문제가 많았다. 곳은 날씨에도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할말이 없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랑 두 대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체력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핑계 대고 싶지 않다"며 "제대로 된 경기를 한 것 같지 않아서 창피하다.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해야 한다. 프로 선수에게 '절실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절실하게 프로답게 하자고 해야 할 거 같다"고 패배를 곱씹었다.

한편 이날 광주의 첫 중프로 선수인 김윤호가 역사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김윤호는 이날 신창무와 함께 투톱으로 선발 출장하면서 K리그1 통산 최연소 출전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금호고 2학년인 김윤호는 2007년 5월 13일생으로 17세 4개월 17일에 프로 첫선을 보였다. 앞선 K리그1 통산 최연소 출전 기록은 성남FC 김지수가 2022시즌 만든 17세 4개월 26일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김한길이가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1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손흥민 2도움·김민재 철벽 수비...국대 유럽파 펄펄

황인범·이강인·정우영 등 활약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면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흥행보 감독에게도 힘이 실릴 거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한국 축구 간판이자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부터 인상적인 활약으로 토트넘(잉글랜드)의 승리에 이바지했다.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와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홈 경기에서 멀티 도움으로 토트넘의 3-1 역전승을 이끌었다.

1-1로 맞선 전반 28분 브레넌 존슨의 역전골, 후반 40분 제임스 매디슨의 쉐기골 모두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흥행보호에서도 명실상부한 에이스다. 지난 10일 오만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1골 2도움 '원맨쇼'로 흥행보 감독에게 부담 첫 승을 안긴 선수가 손흥민이다.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철벽'다운 위상을 회복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소식이다.

토마스 투헬 전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실수가 잦아지면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김민재는 올 시즌 초반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다.

센터백 출신의 병상 봉파니 감독 체제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낙점된 김민재는 올 시즌 6차례 공식전에 모두 출전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무결점 수비로 바이에른 뮌헨의 5-0 승리를 지킨 21일 베르더 브레멘전 김민재는 올 시즌 들어 최고의 경기력을 뽐냈다.

이날 브레멘 공격진은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호흡을 맞춘 뮌헨의 수비를 좀처럼 공략하지 못했다. 유효슈팅뿐 아니라 슈팅 자체를 하나도 차지 못했다.

김민재 특유의 전진 수비가 살아나면서 역습이 빈번하게 무산된 브레멘의 공 점유율은 30%까지 떨어졌다.

경기 막판에는 실점 위기를 맞을 상황에서 깔끔하게 공만 빼앗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돋보였다.

흥행보 감독이 주축으로 삼는 미드필더진도 제 몫을 해내고 있다.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로 동지를 옮긴 황인범은 지난 19일 데뷔전으로 치러진 레버쿠젠(독일)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0-4 패)부터 푼뎀 등 매체로부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베테랑 미드필더 이재성도 지난 15일 베르더 브레멘과 홈 경기(1-2 패)에서 마수결이 득점을 신고했다.

손흥민과 함께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도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스타드 랭스와 원정 경기(1-1 무승부)에

서 선발로 출전해 83분을 소화했다.

이강인은 전반 21분 문전에서 논스름 왼발 강슛으로 득점까지 노리는 등 공격력도 보여줬다.

2선에서 뛰는 공격수 정우영(우니온 베를린)이 '부활포' 소식도 전해졌다.

정우영은 21일 호펜하임과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홈 경기(2-1 승)에서 전반 5분 우니온 베를린 데뷔골을 터뜨렸다. 올해 3월 A매치를 끝으로 A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던 정우영이 이날 득점으로 대표팀 복귀의 신호탄을 쏘면서 흥행보호 2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볼링대회 익산서 오늘 개최

광주 15명·전남 20명 출전

전국 장애인 볼러들이 전북 익산으로 출출동한다. 대한장애인볼링협회가 주최하는 '2024 대한장애인체육회장비 전국장애인볼링대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익산 남부탑 볼링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 구분에 따라 전맹(TPB1·16명), 약시(TPB2·30명), 약시(TPB3·19명), 지적장애(TPB4·59명), 뇌병변(TPB5·6·8명), 뇌병변(TPB7·11명), 휠체어(TPB8·28명), 하지(TPB9·29명), 상지(TPB10·11·26명), 청각(DB·106명) 유형에

총 332명이 참가한다.

광주에서는 15명(지적장애1·휠체어1·하지1·상지2·청각10), 전남에서는 20명(지적장애2·휠체어4·하지2·상지2·청각10)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대회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대회로, 남녀부 개인전 총 4개임을 진행해 합계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한편, 개회식은 24일 오후 12시부터 진행되며 조별 경기가 끝나는 날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장애인볼링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피겨 김유성, 주니어 그랑프리 첫 우승

쇼트·프리·총점 개인 최고점

피겨 스케이팅 차세대 핵심 기대주 김유성(평촌중)이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한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유성은 지난 21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5.74점, 예술점수(PCS) 58.17점, 총점 133.91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 점수 64.72점을 합쳐 최종 총점 198.63점을 기록한 김유성은 2위 일본의 나카이 아미(191.61점)를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쇼트 프로그램, 프리 스케이팅, 최종 점수 모두 개인 최고점을 갈아 치웠다.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은메달 2개를 목에 걸고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4위를 차지했던 김유성은 이번 시즌 첫 번째로 참가한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이 대회 통산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영화 '영웅: 천하의 시작'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김유성은 트리플 악셀을 깔끔하게 성공해 수행점수(GOE) 1.14점을 챙겼다.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루프-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연이은 점프 과제를 모두 완벽하게 뚫은 김유성은 GOE를 쓸어 담으며 점수를 높였다.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린에서는 최고 난도인 레벨 4를 받아냈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에서도 완벽한 연기는 이어졌다.

트리플 루프-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안정적으로 소화한 뒤 트리플 플립, 트리플 살코까지 가볍게 성공했다.코레오 시퀀스로 아름다움을 더한 김유성은 플라잉 카멜 스프린과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린까지 모두 레벨 4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클린 연기로 마무리했다.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 박현서(경신고)는 최종 총점 157.82점으로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